

불자 세상보기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냉전시대의 관성이 한반도를 지배하면서 분단 70년을 맞는 올해까지도 휴전선 일대에서 지뢰가 폭발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이 다시 울리며, 포성이 오가는 일촉즉발의 충돌위기가 반복됐다. 지난 7월에 동안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북한의 연속적인 도발로 남북갈등이 심화돼 왔다. 썩어빠진 응축된 갈등에너지가 심화돼 30여년 만에 북한의 지뢰도발 사건이 재발했다. 남북이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측이 포격을 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맞서 남측이 북측 비무장지대에 40여년 만에 대응 포격을 가하는 등 무력시위가 이어졌다. 남측에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남과 북 사이에 포격이 오간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평소 북한은 한미합동군사연습이 진행되는 동안에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

고 수세적으로 방어태세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북측이 대북 심리전 방송에 맞서 공세적으로 나왔다. 그들 말대로 UFG 한미군사연습이 '북침전쟁훈련'이라면 북의 도발을 빌미로 한미가 반격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북측이 선제공격을 감행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대북 심리전 방송이 북한 지도자의 권위를 훼손하고 북한체제를 이완시키기 때문에, 북측은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대북 확성기 방송을 막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남과 북이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을 비롯한 모든 물리적 자산을 총동원한 가운데 43시간 동안 이뤄진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국지전이나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대치국면을 풀고 대화국면으로 전환됐다. '8·24합의'를 통해 충돌 일보직전의 대결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함으로써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 북한의 지뢰도발과 포격도발에 대한 시인, 사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관계를 복원할 수 있다는 남측 정부의 '도발불용'의 원칙 있는 강한 대응이 반영

돼 북한의 '유감' 표명을 받아냈다. 남북합의문에서 외교적으로 사과에 해당하는 북측의 '유감' 표시를 명문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뢰도발과 포격도발에 대한 북측의 '사과'를 받아들였으므로 그동안 반복된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여론을 잠재우고, 도발→위기→타협→보상→재도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냈다. 합의대로 당국 회담을 비롯해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고, 이산가족 상봉과 민간교류를 활성화한다면 7여년 동안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번 합의에서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5·24조치로 중단된 남북불교교류도 활성화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지난 5월에 발표한 '불교통일선언'에 따라 한국불교가 사회통합에너지를 발현해서 남북갈등을 해소하는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고 민족종질성 회복을 위한 실천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다. 원효스님의 화쟁 사상과 연기법은 남북갈등을 해소하는 사상적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갈등 해소와 통일을

위한 논리와 지혜는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평화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는 부처님의 연기법에서 찾을 수 있다. 같은 민족인 남과 북은 서로 연관된 존재이며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다. 남북갈등과 남북갈등은 서로 다른 인연이 엮어내는 다양성과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남북공존과 상생의 기본은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열린 자세를 가지는 것이다. 남북화해와 동질성 회복의 출발은 원효의 가르침에 따라 남북한이 먼저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을 때 갈등은 심화되고 흡수통일과 적화통일의 논리가 나오게 된다. '다름은 같음이 있으므로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민족공동의 삶의 원리를 찾아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남북불교 교류협력은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 있어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번 남북합의에 따라 한국불교는 민족종교로서서의 위상에 맞게 공존, 상생, 합심의 통일논리에 따라 민족 동질성 회복, 대북 인도적 지원, 북한 불교문화재 복원 등을 위한 노력을 적극화하여 통일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社說

南北 민간교류 활성화 불교계가 앞장을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까지 치달았던 남북관계가 8.25 협상의 극적 타결로 그동안 침체된 불교계 대북 사업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실제로 8월 25일 남북이 발표한 공동보도문중 민간교류 활성화 조항이 들어있어 이런 기대감을 뒷받침해준다. 이에 조계종·천태종 등 주요종단과 불교 통일 단체들은 저마다 환영 논평을 잇달아 발표해 5.24조치 이후 중단된 대북지원사업에 새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대북사업 전문가들도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불교계는 그동안 꾸준히 노력했기 때문에 민간교류 활성화 목표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불교계 대북협력단체들은 올 하반기 활발한 교류 사업을 계획중이다. 우선 민

추본은 9월 묘향산 보현사 서산대사 남북합동다례제와 10월 금강산 신계사 복원8주년 기념 남북합동법회, 민족동질성 회복 차원의 북녘 불교문화재 보수 사업 등도 계획중이다.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도 북측에 2억원 상당의 양파씨앗을 전달키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문제는 언제 급변할지 모르는 남북정세가 불교계 대북사업의 잠재적 장애 요소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현 시점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종교계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종교는 정치군사적 이해관계와 별개로 분열된 민족정신을 융합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불교계가 다시 앞장서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에 활시위를 힘껏 당기자.

불교 자체 교과서 편찬에 주목하자

지난 7월 30일 교육부 공청회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윤리 교과과정 개정안에 불교관련 내용이 대폭 추가되는 쾌거를 만들어냈다. 새로 만들어지는 '고전과 윤리'에는 <금강경>과 <수심결>이 포함됐다. 하지만 8월 27일 열린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초·중·고 개편교과서 연구위원회 2차 회의 결과를 살펴보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남았다. 바로 교과서 집필자들을 위한 불교관련 참고자료 제공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역사교과과정 불교관련 내용 수정 청원회에서 편찬위 고위관계자의 조계종의 공식 교과서 편찬에 대한 역제안이 이뤄지기도 했다는 후문도 들린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교과서 집필은 전적으로 집필자의 의사에 달려있기 때문에 명확하고 바른 내용의 참고 자료 제공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 더불어 '창설형 인증 교과서'를 자체 집필하는 방안을 장기적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창설형 인증 교과서'의 경우 일선학교 요청으

로 신규교목을 창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 인증없이 자체적인 교과서 편찬이 가능하다. 현재 불교사회연구소의 연구위는 윤리·역사·사회의 세 분야로 소위원회를 나누고 집필자료 및 교과서 편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 9월 중으로 관련 불교학자들이 참여하는 심포지엄을 열고 기존 집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하기로 했다. 집필 자료 제공과 더불어 무엇보다 신경써야 할 부분은 불교 자체 교과서를 편찬할 수 있는 '창설형 인증 교과서' 제도이다. 종립학교부터라도 바른 내용의 공인된 불교교육이 시작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교육 불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종단의 관심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예산 지원과 더불어 제대로 된 집필 참고 자료와 교과서 편찬이 진행될 수 있는 연구·편찬 기구를 확대·구성해야 한다. 바른 내용의 불교 교육이 불교 인재 양성의 시작점임을 명심해야 한다.

발언대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군사위기가 고조되었던 8월 전역을 앞둔 군장병들이 희생정신이 우리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50여명에 달하는 장병들의 전역연기에 인터넷에서는 이들을 응원하는 3만여개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이번 장병들의 전역연기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공동체 정신은 부처님의 큰 가르침”



남지심 소설가

현역의 젊은 군인들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스스로 이런 생각을 낸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젊은 나이에 열정으로 나라를 지키는 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위기상황에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애국'이라는 가치에 대해 고답스럽고 촌스럽다는 시선이 있어왔다. 사실 국가는 국민들이 살아가는 '집'과도 같다. 우리 삶의 터전이자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인 것이다. 이번 장병들의 전역연기로 인해 이러한 '공동체' 정신이 다시금 살아난 것 같다. 이들을 응원하는 수많은 댓글과, 이들을 특별채용하겠다는 기업들까지 우리 시대의 사고가 다시금 변화하

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흔히 우리는 '국가'를 중시하면 전체주의라고 오해하며 또 이를 경계한다. 하지만 자유와 평등 등의 가치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우리 개개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안전해야 한다. 이런 공동체 의식이 국민 모두에게 살아있어야 한다. 부처님께서도 연기법으로 이러한 것들을 설하셨다. 굳이 국가로 한정짓지 않고 우리가 속해있는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조금씩 공동체를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일 것이다. 부처님이 깨치신 중도의 연기법은 철학적 세계관이 아니다. 우리 자신과 세상을 변혁하기 위한 실천적 '가르침'으로 그 시작은 바로 공동체를 변화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번 젊은 장병들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사회가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

‘전역연기’ 대한 댓글 이모저모

- 육군 페이스북 나지호 : 군대에서 전우애라는 것이 대단한 무기구나. 감사합니다. 이동규 : 군복 사진만 올리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네요. 후배 전우님들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박소연 : 그곳에서의 긴장감과 부담감을 따라가지 못하겠지만 마음으로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댓글 z681**** 장하고 예쁘다. 전부 내 아들 같다. 그대들은 고귀한 밀거름이 평생 긍정적인 사고로 아름답게 살 것이다. 화이팅 대한민국 육군 bmj5**** 대한민국 국군이 자랑스럽다. 나약하다고 걱정했는데..... 정말

로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믿음직스럽다. 길거리 가다 국군 장병 보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다. 대한민국 국군 파이팅 blue****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럽네요.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뒷일은 후임에 맡기고 몸 건강히 전역하시길 eqwq**** 요즘젊은이들의 국가관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는데 생각을 달리해야겠습니다.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고맙구요. sam1**** 너무 멋진 청년들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당신들의 것이다. 파이팅 indi**** 우리의 20대 믿음직스럽다. 저들에게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일자리와 생활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지상과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서혜원 편집인: 박혜월 인쇄인: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인사홍 연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연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물 연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062)512-5003 전북지사: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055)746-9778 영주지사: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베스트셀러 소설 《관상》의 작가 백금남의 또 하나의 걸작! 우란분절에 만난 지극한 효 이야기! 지옥에 빠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여섯 지옥을 헤맨 전생의 목련존자, 그리고 잃어버린 어머니를 찾아 나선 현생의 나..... “어허, 극락세계를 마다하고 고해 속으로 들어간다. 도대체 부모가 무엇이기에....., 그대를 인간지옥에 넣은 이들이 바로 부모란 존재라는 것을 잊었는가?” “어찌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이곳의 그대들이 알겠소. 내가 그들에게 가는 것은 그들이 바로 나의 우주이기 때문이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장본인들이요, 그러므로 바로 나이기 때문이오.” 거대한 윤회의 법칙만이 전부인, 그렇기에 우주의 법칙대로 움직이는 그들에게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면서도 목련은 그렇게 말하였다. (본문에서) 백금남 지음 | 신국판 | 368쪽 | 값 13,500원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7길 12 백상빌딩 1305호 | kyooni003@hanmail.net 참글사랑 1% 나눔의 기쁨